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주민과 함께 '쓰담쓰담'... 만수저수지 깨끗한 호숫길 가꾸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ESG 사회공헌 캠페인 전개
жат은 우천 뒤 늘어난 쓰레기 수거시설 점검 실시
김영조 안성지사장 "쾌적한 저수지 환경으로 시민 휴식 공간 만들 것"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등록 2025.09.11 09:57:48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만수저수지 환경정화활동에 앞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 김영조)는 10일, 안성시 공도읍 만수저수지 일원에서 직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쳤다.

‘쓰담쓰담’ 캠페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표적인 ESG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사 직원과 시민이 힘을 모아 깨끗한 저수지 환경을 조성하고 ESG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저수지에 생활쓰레기와 부유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커지자, 안성지사는 이번 활동에 환경정화와 안전 점검을 중심으로 주안점을 두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직원과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만수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며 호수 환경 개선에 나섰다.

김영조 안성지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저수지를 제공해 시민들이 산책과 여가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정화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ESG 실천으로 건강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